

SKT,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 참가

AI가 일상 되고 메타버스 세상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다

**- SKT, 22일까지 코엑스서 AI, 메타버스, UAM 등 혁신 ICT 기술과 서비스 전시**

**· AI 반도체부터 AI 스피커, 앱, 카메라 등 인공지능으로 가득한 일상 소개**

**· 메타버스 속 볼거리도 풍성… 이프랜드 HMD와 가상 전시회 등 이목 집중**

**· 초현실적 경험 제공하는 UAM 시뮬레이터와 ICT 활용한 ESG 서비스도 눈길**

**- 전시 체험 후 스티커 모아 경품 받고 퀴즈쇼 참여하는 등 즐길거리도 풍성**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22. 4. 19]**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20~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WIS 2022)'에서 AI, 메타버스, UAM 등 첨단 ICT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SKT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의 초현실적인 경험’을 테마로 꾸린 870㎡ 규모의 전시관에 AI, 메타버스, UAM 등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ICT 기술과 혁신적인 ESG 서비스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 AI 반도체부터 AI 스피커, 앱, 카메라 등 인공지능으로 가득한 일상을 만나다**

SKT는 AI의 핵심이 되는 기술부터 AI가 적용돼 편리한 미래의 일상을 체험하는 기회까지 제공하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SKT는 자체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SAPEON(사피온)'을 전시한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수행하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

관람객은 'SAPEON'과 글로벌 톱 수준의 반도체 회사가 개발한 GPU(그래픽처리장치)의 데이터 처리 속도 비교 시연을 통해 SKT가 개발한 AI 반도체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 보기 힘든 반도체 칩 실물도 관찰할 수 있다.

또 관람객은 SKT가 아마존 알렉사와 제휴해 한국어-영어 동시 사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멀티 에이전트'를 내 집 거실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아리아'를 부르면 한국 콘텐츠를, '알렉사'를 부르면 해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SKT는 AI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의 화질을 개선하는 '슈퍼노바(Supernova)' 앱(app)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저해상도 사진을 쉽고 빠르게 고화질 사진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영상을 분석해 사물의 종류와 동작까지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 사물 검색과 침입 탐지 등에 활용되는 AI 카메라와 비전 AI 기술 시연도 선보인다.

**■ 메타버스 속 볼거리도 풍성… 이프랜드 HMD와 가상 전시회 등 이목 집중**

SKT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가상 세계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SKT는 스페인에서 열린 MWC2022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프랜드(ifland)'의 HMD(Head Mounted Display) 버전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더욱 실감나는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한다. HMD를 착용한 체험자가 보고있는 장면을 체험자 전면에 위치한 2개의 대형 LED에 보여줘 많은 방문객이 함께 관람할 수 있게 준비했다.

SKT는 '이프랜드' 내 가상 세계에 갤러리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이 아바타가 되어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신인 작가들의 디지털 작품을 관람하고 도슨트 아바타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시회도 준비했다.

또한 볼류매트릭\*으로 제작한 K-POP 가수 제이미의 AR 콘텐츠와 함께 SKT 본사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소 '점프스튜디오'에서 AR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벽면에 송출해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볼류매트릭(Volumetric) : 360도 전방위를 커버하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오브젝트를 촬영해 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실제와 유사한 생생함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

**■ 초현실적 경험 제공하는 UAM 시뮬레이터와 ICT 활용한 ESG 서비스도 눈길**

SKT는 차세대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4D 메타버스를 준비해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관람객은 360도로 회전하는 시뮬레이터에 앉아 VR 기기를 쓰기만 하면 마치 차세대 교통수단 에어택시에 탑승한 듯한 초현실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SKT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관람객은 세계적 권위의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SMA Global Mobile Awards) 2022'에서 입상한 시각보조 서비스 ‘설리번플러스 x NUGU’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관람객은 시각을 차단한 채로 음성 안내를 통해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음성 안내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사람, 글자, 사물 색상 등을 인식해 제공된다.

또한 SKT는 AI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를 활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을 줄이는 다회용컵 사용 프로젝트 '해피해빗'도 소개한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다회용 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해 반납시 자연스럽게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환경 보호를 위한 AI 기술의 의미를 전달한다.

SKT는 관람객이 생생하게 첨단 IC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관람객은 'SKT 뉴스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고 전시에 대한 설명이 담긴 키트를 받을 수 있다. 각 체험존에서 체험을 마칠 때 마다 스티커를 받는데, 이 스티커를 키트에 모두 붙이면 뽑기 기계에서 누구 캔들(NUGU Candle), 갤럭시 버즈, 다회용 컵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T우주' 관련 퀴즈쇼와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박규현 SKT 디지털커뮤니케이션담당은 "AI와 메타버스가 일상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ICT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월드IT쇼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 ICT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6)**

|  |
| --- |
|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20~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WIS 2022)'에서 AI, 메타버스, UAM 등 첨단 ICT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은 SK텔레콤의 전시 부스 조감도다. |

**<끝>**